

한주간 쉽게 보는

국내 미래산업 연구 및 정책동향

Domestic Future Industry Research and Policy Trends

No. 79



Contents

※ 2025.05.15.(목) 기준(대상 기간 : 2025.05.08.~2025.05.14.)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동향

▪ 수소

- 정부, 올해 청정수소·일반수소 발전 4300GWh 규모 입찰 공고(2025.05.09) 1
- 전북 수소산업, 속도에도 깊이 부족 진단(2025.05.08) 1
-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 디폴트 위기, 시의회 특위 구성 촉구(2025.05.08) 2
- 정부, 'K-조선 드림팀' 결성으로 초고난도 액화수소 운반선 개발 본격 착수(2025.05.09) 2
- 속초 수소충전소, 열교환기 고장으로 장기간 운영 중단돼 시민 불편 가중(2025.05.12) 3
- 군산시, 총 593대 규모 전기·수소 자동차 구매 보조금 신청 접수 개시(2025.05.14) ... 3

▪ UAM

- 청주공고 학생 주도 UAM 제작·비행 시연회 성공 개최(2025.05.13) 4

▪ 우주

- 고흥우주항공축제, 역대 최다 12만 명 방문객 기록하며 성료(2025.05.08) 4
- 제1회 우주항공의 날 기념식, 경남 사천시 개최 확정(2025.05.09) 5
- 광주과학발명페스티벌, '과학과 발명으로 만나는 우주세상' 주제로 개최 예고(2025.05.09) · 5

□ 국가 및 지방기관 연구 동향

▪ 수소

- 코레일, 친환경 수소전기동차 실증사업 착수 보고회 개최 및 본격 추진(2025.05.08) · 6

- 한국석유관리원, 전국 수소충전소 상반기 현황 조사 실시 예고(2025.05.09)7
- 경남TP, 예비수소전문기업 육성 지원 사업 추진(2025.05.08)7
- 충남TP, 당진 수소도시 연계 R&D 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2025.05.08)8
- 한국전기안전공사-두산퓨얼셀, 수소경제 활성화 및 연료전지 안전관리 강화 업무협약 체결(2025.05.13) 8

▪ 우주

- 우주항공청,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신청(2025.05.08)9
- 경제5단체, 차기 정부에 AI·우주·바이오 등 100대 정책 과제 제안(2025.05.11)10
- 과기정통부,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10개 선정...6100억 원 투입(2025.05.14)10
- 경남TP-KASP-경상국립대, 우주산업 실무형 인재 양성 3자 협약 체결(2025.05.09) · 11

□ 민간 관련 기관 및 행사(포럼, 세미나, 토론회) 주요 내용

▪ 수소

- 호그린에어, 나이스디앤비 기술평가 T-2 등급 획득으로 수소드론 기술력 과시(2025.05.11) 11
- 현대차 신형 '디 올 뉴 넥쏘' 출시 임박, 국내 수소차 5만대 시대 견인 전망(2025.05.12) ...12
- 국제 수소연료전지 포럼, 21일 우식대서 개최·국제표준화 및 그린수소 기술 등 심층 논의(2025.05.14) ...12
- APEC 자동차 대화, 전기차·배터리·수소 등 미래 모빌리티 핵심 의제 논의(2025.05.09) ...13

▪ UAM

- 1400조 UAM 시장, 잇단 항공 사고로 상용화 지연 우려(2025.05.09)14

▪ 우주

- 스피어, 美 우주항공사와 추가 공급 계약 체결...누적 수주액 급증(2025.05.08)15
- 삼성·SK, 국제 달 탐사 '아르테미스 2호' 참여, 우주방사선 반도체 성능 실험(2025.05.09) ..15

- 손재일 한화 대표, "제주 한화우주센터에서 6G 통신위성 생산 계획"(2025.05.13) 16
- 키프코우주항공, 한화시스템과 L-SAM 다기능 레이더 핵심부품 양산 계약 체결(2025.05.13) · 16
- 부산대, 국내 최대 '우주환경 진공시험시설' 구축 완료(2025.05.08) 17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동향

☞ 수소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p>중앙부처</p>	<p>□ 정부, 올해 청정수소·일반수소 발전 4300GWh 규모 입찰 공고(2025.05.0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올해 총 연간 4300GWh 규모의 청정수소 및 일반수소 발전 입찰을 시작함.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전력거래소 수소발전 입찰 시장 사이트를 통해 공고하고 사업자 대상 입찰을 진행한다고 밝힘. 수소발전 입찰 시장은 수소·수소화합물 연료 전기를 장기 계약 고정가로 구매 공급하는 제도로, 청정수소와 일반수소 발전으로 구분 - 올해 청정수소 발전 입찰 물량은 연간 3000GWh, 거래 기간 15년으로 85만 가구 사용 가능 전력량임. 국내 청정수소 인증 기준(수소 1kg 생산 시 온실가스 배출량 4kgCO₂e 이하) 충족 연료 사용 발전 설비만 참여 가능 - 일반수소 발전 입찰은 연간 1300GWh, 거래 기간 20년으로, 낙찰자는 8월경 선정 후 2027년까지 발전 시작해야 함. 올해 청정수소 입찰에는 환율 연계 정산 제도와 물량 차입 제도가 처음 도입되어 사업자 리스크 완화 및 유연한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분산형 전원 설치 촉진을 기대
<p>지자체</p>	<p>□ 전북 수소산업, 속도에도 깊이 부족 진단(2025.05.0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특별자치도는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 유치와 전주의 전국 1위 수소버스 보급 실적을 통해 '수소 중심지' 도약을 목표로함. 그러나 기업 집적도, 인프라 부족, 전문 인력 양성 시스템 미비 등 구조적 한계로 외형 성장 이면의 내실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 전북일보는 전북 수소산업 현황 진단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과제를 심층 분석 예정 - 전북 수소산업은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으로 일부 성과를 달성함. 해당 산단은 165만여㎡ 부지에 수소모빌리티, 저장용기, 수소용품 기업 집적화를 추진 중임. 세계 최초 수소 트럭 상용화와 국내 유일 수소버스 생산지라는 강점을 기반으로 2030년까지 137개 기업 유치, 10조 원 매출, 1만 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함. 전주시도 수소차 보급 및 충전소 확대에 인프라 구축에 노력 - 그러나 전북 수소산업은 활용 분야, 특히 모빌리티 편중으로 생산·저장·운송 등 기반 부문이 취약하다는 평가임. 한국산업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전북은 수소모빌리티는 강점이나 생산 인프라와 저장·운송 기술 확보는 전국 평균에 미달함. 균형 잡힌 산업 구조 개편, 충전 인프라 확충, 전문 인력 양성 기반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지적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 디폴트 위기, 시의회 특위 구성 촉구(2025.05.0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 사업 특수목적법인 '하이창원'이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에 빠져 사업이 중대 위기에 직면함. 창원시의회 문순규·진형익 의원이 사업 정상화를 위한 의회 차원 특별위원회 구성을 공식 제안하며 시의 적극적인 사태 수습을 촉구함. 방치 시 최대 1100억 원의 공적 재정 손실 발생 가능성을 경고 - '하이창원'은 창원산업진흥원 출자 법인으로, 현재 매일 약 2000만 원의 지연이자를 부담하며 연간 손실액 60억 원 초과 가능성이 제기됨. 법적 분쟁 장기화 시 창원산업진흥원 파산 우려도 나옴. 의원들은 창원시가 채무부존재 소송 등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부와 경남도의 수소산업 주요사업에서 배제되고 경쟁력도 위협받고 있다고 비판 - 문 의원과 진 의원은 시의회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액화수소플랜트사업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함. 특위는 갈등 조정, 관계기관 협력, 전문가 자문, 시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사업 정상화 방안 마련 및 정책 지원 건인을 목표로 함. 5월 임시회에서 정치적 입장을 넘어 특위 구성을 결의할 것을 촉구
	<p>□ 정부, 'K-조선 드림팀' 결성으로 초고난도 액화수소 운반선 개발 본격 착수(2025.05.0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가 조선 산업 차세대 먹거리인 액화수소 운반선 개발을 위해 민관 합동 추진단을 출범시킴.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부산 벡스코에서 산업부, 조선 3사(HD현대·한화오션·삼성중공업), 대학·연구원 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K-조선 액화수소 운반선 민관 합동 추진단' 출범식을 개최함. 액화수소 운반선은 운송 효율을 10배 이상 높이는 미래 선박으로, 기술 난이도가 매우 높고 부가가치가 큼 - 정부는 조선 산업 초격차 경쟁력 확보 및 신시장 선점을 위해 액화수소 운반선을 LNG 선에 이은 차세대 먹거리로 육성할 계획임.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액화수소 운반선 초격차 선도 전략 발표 후 올해 총 555억 원을 지원하고 2027년까지 세계 최대 규모 실증선박 건조를 목표로 함. 현재 101개 기관이 총 43개 연구개발 과제를 진행 - 출범한 추진단은 연구개발 과제 간 연계·협력, 실증 선박 건조 협력, 액화수소 기자재 공급망 구축 등 기술개발 협력 생태계 구성에 집중할 방침임. 산업부 관계자는 초기 기술개발 리스크가 큰 만큼 정부의 마중물 역할이 중요하며, 개발 기술의 글로벌 스탠다드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및 기술 조기 확보 지원을 약속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p>□ 속초 수소충전소, 열교환기 고장으로 장기간 운영 중단돼 시민 불편 가중(2025.05.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속초 유일 수소충전소가 지난달 30일 열교환기 고장으로 장기간 운영 중단되어 수소차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음. 강정호 도의원에 따르면 열교환기 내 오링 품질 저하로 부동액 누유가 발생, 압축기 훼손 위험으로 운영을 중단함. 열교환기는 압축기 고온 상승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며, 수소 충전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수적인 부품 - 충전소 설비 수리 지연과 연휴 기간이 겹쳐 속초시민과 관광객들이 큰 불편을 겪어야 했음. 이에 관리 주체인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테크노파크는 현장 점검으로 원인 파악 및 고장 설비 교체 진행 중이며, 이용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앱 및 SNS로 관련 내용을 공지하고 있음. 신속한 대응과 투명한 정보 공개가 중요한 상황 - 2021년 운영 개시한 속초 유일 수소충전소는 잦은 고장으로 시민 불만이 높았음. 강정호 의원은 반복적인 사전 점검 강조에도 불구, 9일간 운영 중단된 점을 지적하며 테크노파크의 사과와 재발 방지책 마련을 요구함. 한편, 수소충전소는 지난 10일 수리를 마치고 운영을 재개하여 시민 불편이 일부 해소
지자체	<p>□ 군산시, 총 593대 규모 전기·수소 자동차 구매 보조금 신청 접수 개시(2025.05.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 군산시가 총 593대 규모의 친환경 자동차 구매 보조금 신청 접수를 14일 시작한다고 밝힘. 이번 '친환경 그린모빌리티 보급 사업' 지원 차량은 전기차 541대(승용 370, 화물 150, 버스 21)와 수소차 52대(승용 30, 버스 22)로 구성됨. 이는 정부 탄소중립 정책 부응 및 시민 친환경차 구매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 - 지원 대상 차종별 보조금은 전기 승용 최대 1210만원, 전기 화물 최대 1750만원, 전기버스 최대 1억 4000만원임. 수소차는 수소 승용 최대 3450만원, 수소 버스 최대 3억 8000만원을 지원하여 초기 구매 비용 부담을 크게 낮출 전망이다. 이러한 보조금 지원은 친환경 차량 대중화 촉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신청 자격은 접수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군산시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임. 구매 희망자는 자동차 판매사 계약 후 판매사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대행

☞ UAM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증양부처	- (해당 없음)
지자체	<p>☐ 청주공고 학생 주도 UAM 제작·비행 시연회 성공 개최(2025.05.1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주공업고등학교 항공모빌리티과 학생들이 13일 학교 운동장에서 직접 제작한 도심항공교통(UAM) 기체의 비행 시연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 이번 시연회에서는 제자리 비행인 호버링과 기체의 지상 이동인 택싱 운행이 진행되었으며, 교육 관계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서 이루어짐 - 이날 시연된 UAM 기체는 최대 7분간의 안정적인 호버링 비행을 선보였으며, 지상에서 약 1m 높이로 비행하며 원격 택싱 주행에도 성공함. 청주공고 항공모빌리티과 학생들은 다음 단계로 자율 비행 시스템 개발과 실제 물품을 운송하는 테스트를 계획하고 있어, 학생들의 기술적 성장이 기대됨. 이번 성과는 미래 항공 기술 인력 양성의 중요한 사례 - 시연회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교육과정과 미래유망고졸인력양성사업과 연계되어 추진되었으며, 국내 항공 기업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전문가 멘토링으로 현장과 교육 간극을 좁힌 모범적인 산학협력 사례로 평가받음

☞ 우주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증양부처	- (해당 없음)
지자체	<p>☐ 고흥우주항공축제, 역대 최다 12만 명 방문객 기록하며 성료(2025.05.0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남 고흥군에서 열린 우주과학축제에 역대 최다인 12만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며 성공적으로 폐막함. '위대한 인류의 비상, 지구문명에서 우주문명으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는 가족 단위 관람객의 뜨거운 호응 속에 다양한 체험, 전시,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대표적인 참여형 과학축제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음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국내 우주개발의 심장부인 '나로우주센터 발사장 견학 프로그램'은 평소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시설을 직접 체험할 특별한 기회를 제공하여 참가자들에게 깊은 감동과 함께 국가적 자부심을 안겨줌. 우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 - 또한 우주복 입기 체험, 우주인 카니발 퍼레이드, 우주미술관, 나로호·누리호 실물 전시 등 총 140여 종의 다채로운 콘텐츠는 우주의 신비로움을 생생하게 전달하며 관람객들의 이목을 집중시킴. KAIST 행성탐사로버 전시, 별자리 천문관측 체험, 우주식량 시식 등은 미래 우주인을 꿈꾸는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됨
	<p>□ 제1회 우주항공의 날 기념식, 경남 사천시 개최 확정(2025.05.0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회 우주항공의 날 기념식이 당초 검토되던 경기도 과천시 아닌 경남 사천에서 열리는 것으로 최종 확정됨. 우주항공청 등은 지역 사회 여론과 우주항공청 구성원의 참여 중요성을 고려하여 이같이 결정하고 초청장 발송을 시작함. 이는 우주항공청 소재지인 사천의 상징성을 높이는 결정으로 평가 - 행사는 5월 27일 오전 10시 사천시 사남면 우주항공청 임시청사 1층에서 개최되며, 주요 프로그램은 우주항공청 비전 동영상 상영과 유공자 포상 등으로 구성됨. 우주항공청 관계자는 개청 1주년에 있어 구성원들의 지난 1년간 노고를 격려하고,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강화하는 의미도 크다고 설명 - 한편, 같은 날 오후 3시 과천과학관에서는 우주항공 주간 선포식이 열려 화성 체험 프로그램, 우주항공 토크 콘서트, 누리호 실물모형 제막식 등 다양한 국민 참여 행사가 진행될 예정임. 기념식 사천 개최 확정에 지역 사회는 환영의 뜻을 밝히며, 사천이 우주항공도시임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p>□ 광주과학발명페스티벌, '과학과 발명으로 만나는 우주세상' 주제로 개최 예고 (2025.05.0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광주과학관 야외광장 일원에서 5월 17일부터 18일까지 '2025 광주과학발명페스티벌'이 개최될 예정임. 국립광주과학관과 광주광역시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과학과 발명으로 만나는 우주세상'을 주제로 총 8개 마당 63종의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과 부대행사로 꾸며질 예정 - 국립광주과학관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 행사 기간 동안 상설전시관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p>(본관·어린이과학관·인공지능관)을 무료로 개방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임. 개막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우주탐사선, 우주로켓, 창의발명품 만들기 등 다양한 우주과학기술 및 발명 교육 체험이 가능</p> <p>- 미래상상마당에서는 AI 자동차 탐험, 레고 화성 탐사, 드론 우주탐사 등 첨단 과학기술 체험이, 기초과학마당에서는 뇌 구조 마스크, 진동 로봇, 바다 유리 키링 만들기 등 기초과학 원리 체험이 준비됨. 또한 과학관 음악회, 과학 강연, 뮤지컬 갈라쇼 등 특별 공연과 다양한 이벤트도 함께 진행될 예정</p>

□ 국가 및 지방기관 연구 동향

☞ 수소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p>□ 코레일, 친환경 수소전기동차 실증사업 착수 보고회 개최 및 본격 추진(2025.05.08)</p> <p>-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8일 대전 본사에서 '친환경 수소전기동차 실증 연구개발 사업' 착수보고회를 열고 사업 본격 추진을 알림. 보고회에는 한문희 코레일 사장,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한국교통대 등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함. 총 321억 원 규모의 이 프로젝트는 수소전기동차 제작, 시험운행 등 핵심 실증사업을 포함하여 진행될 예정</p> <p>- 이번 실증사업은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 주관으로, 코레일 중심 다수 산·학·연 기관 협력하에 2028년 수소전기동차 상용화를 위한 기술·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함. 코레일이 사업 총괄을, 국가철도공단, 한국교통대, (주)우진산전 등 6개 기관이 차량제작·설계, 성능검증, 충전소·검수시설 구축, 제도 개선 등 분야별 과제를 수행</p> <p>- 수소열차는 전차선 없이 비전철 노선 운행이 가능하고, 디젤열차 대비 에너지 효율 2배 이상 높으며 탄소 배출 없는 친환경 교통수단임. 최고속도 시속 150km, 1회 충전 시 최대 600km 이상 주행 목표로, 기존 디젤기관차 대체 효과를 기대함. 코레일은 수소열차·버스 동시 충전시설 구축도 병행하며, 올해 말 부지 선정을 완료할 계획</p>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p>□ 한국석유관리원, 전국 수소충전소 상반기 현황 조사 실시 예고(2025.05.0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석유관리원이 수송용 수소 시장 안정적 수급 관리를 위해 5월 19일부터 30일 까지 전국 수소충전소 대상 상반기 현황 조사를 실시함. 조사는 가격표시 준수, 하잉(hying) 정보 일치 여부 확인, 긴급 민원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이용 편의성 향상 및 수급 관리를 목적으로 함. 이를 통해 수소차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안정적인 충전 환경을 조성할 계획 - 석유관리원은 안정적 수급 관리를 위해 충전소 주요설비 현황, 설비점검 계획 등을 파악하고, 충전소 관계자와 비상 연락체계를 마련해 운영 중단 시 긴급 유지보수 및 대체충전소 안내 등 긴급 민원 대응 체계를 구축할 예정임. 이는 수소차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수소 충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음 - 아울러 수소 사업자 대상 충전소 운영 개선 요구사항 접수 및 하잉(Hying) 운영 방법, 대체충전소 안내 등 현장 교육도 병행할 계획임. 석유관리원은 하잉 및 소비자 신고센터를 통해 운영 현황, 충전 차질 시 대체충전소 안내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조사 요구사항을 반영해 편리한 수소 충전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힘
지방기관	<p>□ 경남TP, 예비수소전문기업 육성 지원 사업 추진(2025.05.0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남테크노파크(경남TP)가 지역 내 수소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2025년 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사업' 수혜기업을 21일까지 모집함. 경남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중 수소산업 매출 실적 또는 특허 보유 기업 10개 사를 선정 지원할 예정임. 경남TP는 2022~2024년 동일 사업으로 25개 사를 지원, 이 중 8개 사가 수소전문기업으로 성장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음 - 지원 내용은 시제품 제작, 시험평가 인증,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기술도입·이전, 장비활용, 공정혁신, 시장조사, 디자인 개발, 홍보마케팅, KGS 안전·실무자 역량교육 등 다양함. 참여 기업은 필요에 따라 지원 항목을 선택 신청 가능하며, 기업당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종합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이를 통해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사업화 촉진이 기대 - 사업 관련 상세 정보 및 신청은 경남TP 누리집(www.gntp.or.kr)에서 가능하며, 마감일은 5월 21일임. 경남TP는 이번 지원을 통해 유망 중소·중견기업이 수소전문기업으로 발돋움하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임. 이는 경남 지역 수소 경제 활성화 및 관련 산업 생태계 강화에 기여할 전망으로, 지역 산업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방기관	<p>□ 충남TP, 당진 수소도시 연계 R&D 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2025.05.0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테크노파크(충남TP)가 당진 수소 도시 조성 과 연계해 수소 모빌리티 및 연료 전지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2025년 당진 수소 도시 연계 R&D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8일 모집한다고 밝힘. 사업은 수소 관련 기업 기술 역량 강화와 R&D·상용화 촉진을 목표로 하며, 수소 모빌리티, 연료전지, 수소 생산·저장·운송 등 산업 전반 기업을 대상으로 함 - 충남TP는 중소·중견 수소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맞춤형 R&D, 시제품 제작, 보유 장비 활용 분석·검증, 인증 지원, 경영·기술 컨설팅, 마케팅 역량 강화 등 폭넓은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임. 이를 통해 참여 기업의 기술 혁신과 시장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 산업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 - 기업당 최대 70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모집은 오는 16일까지임. 자세한 사항은 충남TP 홈페이지 사업공고에서 확인 가능함. 충남TP는 이번 사업을 통해 당진 수소 도시 회원사 체계 확립과 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촉진하여, 향후 충남 수소 산업 선도 핵심 거점 기반 마련을 계획
	<p>□ 한국전기안전공사-두산퓨얼셀, 수소경제 활성화 및 연료전지 안전관리 강화 업무협약 체결(2025.05.1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전기안전공사가 두산퓨얼셀과 군산 두산퓨얼셀 공장에서 '수소경제 활성화 및 연료전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힘. 협약은 정부 수소경제 전환 정책에 발맞춰 연료전지 전 주기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및 양 기관 상호 협력을 통한 관련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 - 지난 12일 진행된 협약에는 양 사가 연료전지 전 주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교류와 협력을 이어간다는 내용과 신기술·선진기술 국내 정착을 위한 검사 기준 개발, 안전 관리 교육 강화 등이 포함됨. 이를 통해 양 기관은 각자의 전문성과 자원을 효과적으로 공유하고 활용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 - 양 사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연료전지 수소 발전량 목표치 확대 등 정부 정책의 원활한 이행과, 제품 검사 시행에 따른 전주기 안전관리 강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함. 김성주 한국전기안전공사 기술이사는 “꾸준한 교류를 통해 양 사가 함께 발전하는 동반자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하며 지속적인 협력 의지를 표명

☞ UAM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 (해당 없음)
지방기관	- (해당 없음)

☞ 우주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p>☐ 우주항공청,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신청(2025.05.0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주항공청이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 계획 변경을 위해 지난 2일 기획재정부에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심사를 신청했다고 8일 밝힘. 이번 재검토를 통해 사업계획이 변경되면 우주 발사 서비스 시장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됨. 우주청은 절차에 적극 협조하여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추가 지연 없이 사업을 추진할 예정 - 우주청은 급변하는 세계 우주발사체 개발 동향에 적극 대응하고 차세대발사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기 재사용화를 추진 중임. 이는 발사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발사 효율성을 높여 국내 우주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는 핵심 전략으로 평가받고 있음 -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는 예산 투입의 효율성과 사업 목표 달성 가능성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과정임. 우주항공청은 이 과정을 통해 더욱 현실적이고 경쟁력 있는 차세대발사체 개발 계획을 확정하고, 대한민국 우주 강국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는 방침임.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가 필요한 시점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방기관	<p>□ 경제5단체, 차기 정부에 AI·우주·바이오 등 100대 정책 과제 제안(2025.05.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5단체(대한상의, 경총, 한경협, 무협, 중견련)가 차기 정부가 중점 추진해야 할 4대 분야 100대 과제를 담은 정책 제안집 '미래 성장을 위한 국민과 기업의 제안'을 공동으로 발표함. 이는 대선을 앞두고 경제계가 단일화된 목소리로 정책을 제안한 첫 사례로, 성장 동력 촉진, 신사업 육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 제안집은 국가 AI 역량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향후 3~4년이 AI 3대 강국 도약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함. 'AI 3+3 이니셔티브 전략'을 통해 에너지·데이터·인재 등 3대 투입요소와 인프라·모델·AI전환 등 3대 밸류체인 간 선순환 구조 구축을 제안함. 항공우주산업, 로봇, 바이오 등 첨단산업 지원 확대도 포함 - 대외 통상환경 대응 방안으로 민관 합동 협상 지원체계 구축, 대미 통상전략 수립, 신흥시장과의 신규 무역협정 추진 등을 제시함.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생산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고용·노동정책 개편 필요성도 언급함. 대한상의는 새로운 방식의 성장 전략을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차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
	<p>□ 과기정통부,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10개 선정...6100억 원 투입(2025.05.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2025년도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지원사업' 최종 평가 결과, 총 10개 과제를 선정했다고 14일 발표함. 이 사업은 출연연 간 칸막이를 없애고 산·학·연 역량을 결집시켜 국가적 임무를 수행하는 이차전지, 수소, 첨단바이오, 원자력, 반도체 분야 국가대표 연구단 육성을 목표로 설정 - 올해는 국가전략형 5개, 미래도전형 5개로 유형을 분류하여 총 61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임. 국가전략형에는 '초연결 확장형 슈퍼양자컴퓨팅 전략연구단'(표준연 총괄, 750억 원), '기후위기 대응 이산화탄소 자원화 전략연구단'(화학연 총괄, 1000억 원), '극한 환경 혁신형 핵융합 디버터 전력연구단'(핵융합에너지연 주도), '자율성장 AI 휴머노이드 전략연구단'(KIST 주도, 1050억 원), '우주항공 반도체 전략연구단'(ETRI 주도, 1050억 원) 등이 선정 - 미래도전형에는 초고감도 정밀 압 유전자 분석, 차세대 뇌 글림프계·신경계 조절, 비불소계 수소연료전지, 극한 환경 적응형 이차전지, 질소 자원화 전략연구단 등이 포함됨.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전략연구단을 지속 확대하고, 출연연이 국가적 임무 중심의 산·학·연 역량결집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힘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방기관	<p>□ 경남TP-KASP-경상국립대, 우주산업 실무형 인재 양성 3자 협약 체결(2025.05.0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남테크노파크(경남TP)가 9일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KASP), 경상국립대학교 우주항공대학과 '2025년 우주산업 실무형 인재양성 기업트랙사업'을 위한 3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함. 이번 협약은 경남 지역 우주산업 경쟁력 제고와 현장 중심의 실무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마련 - 각 기관은 △산·학·연 전문연수협의회 구성 △우주산업체 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 △연수생 모집·선발 및 현장실습 △경남지역 맞춤형 우주산업체 채용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함. 교육 및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함께 모색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계획 - 우주산업 실무형 인재 양성 과정은 오는 6월 2일까지 연수생을 모집하며, 경남도 내 우주산업체 근무 희망 이공계 대학(원) 졸업(예정)자 및 연관 산업 경력자가 지원 가능함. 김정환 경남TP 원장은 이번 협약이 지역 인재 유출 방지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즉시 투입 가능한 실무형 인재 육성에 힘쓰겠다고 밝힘

□ 민간 관련 기관 및 행사(포럼, 세미나, 토론회) 주요 내용

☞ 수소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p>□ 호그린에어, 나이스디앤비 기술평가 T-2 등급 획득으로 수소드론 기술력 과시 (2025.05.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 최초 수소전문기업 호그린에어가 나이스디앤비 기술평가에서 T-2 등급을 획득하며 수소드론·연료전지 기술력을 입증함. T-2 등급은 상위 5% 이내 우수 기술기업에 부여되며, 정책금융, 공공 R&D, 벤처투자 유치 등에서 신뢰도 높은 기업으로 간주되어 각종 지원과 기회에서 우선순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됨
민간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그린에어는 기술 독창성, 시장 확장성, 수익 모델 지속 가능성, 글로벌 전략 등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p>모든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함. 기술력·시장성·재무안정성·사업성 등에서 우수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됨. 홍성호 대표는 기술력을 넘어 수익성 있는 비즈니스 모델과 확장성까지 인정받은 결과라며, 향후 기술 선도 기업으로서 입지를 공고히 하겠다고 말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회사는 수소연료전지 기반 장시간 체공 드론, 이동형 및 고정형 연료전지 시스템, 지상관제 시스템(GCS), 자율비행 AI 솔루션 등 무인이동체 전반 기술을 자체 보유함. 기존 리튬배터리 드론의 짧은 체공시간(20~30분)을 극복, 1시간 이상 비행 가능한 고효율 수소드론으로 고부가가치 임무 수행이 가능한 특수 목적형 드론 시스템을 개발해 주목받고 있음 <p>□ 현대차 신형 '디 올 뉴 넥쏘' 출시 임박, 국내 수소차 5만대 시대 견인 전망(2025.05.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차 '디 올 뉴 넥쏘'가 15일 사전계약 개시하며 연내 수소차 5만대 시대를 이끌 전망이다. '디 올 뉴 넥쏘'는 7년 만의 완전변경 모델로, 현대차의 세 번째 양산 수소차임. 업계는 신형 넥쏘 출시가 국내 수소차 시장 성장에 강력한 모멘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며, 친환경차 시장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음 - '디 올 뉴 넥쏘'는 15일 사전계약 후 이르면 6월 말 고객 인도를 시작할 예정임. 1세대 넥쏘 대비 충전시간, 주행거리, 가속성능 등 여러 요소가 개선되었으며, 특히 5분 충전으로 700km 이상 주행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임. 현대차는 이를 통해 전기차, 하이브리드차와 함께 탄탄한 친환경차 라인업 구축을 목표로 설정 - 업계는 연내 수소차 누적 5만대 판매를 충분히 가능하다고 전망함. 7년 만의 신제품 출시와 정부의 수소차 보급 지원 예산(7218억원, 승용차 1만1000대 보조금)이 긍정적 요인임. 현대차는 신형 넥쏘 연간 생산 목표를 1만3000대로 잡고, 울산 공장 내 차세대 수소연료전지 공장 건설도 확정하며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설 방침
대학교	<p>□ 국제 수소연료전지 포럼, 21일 우석대서 개최...국제표준화 및 그린수소 기술 등 심층 논의(2025.05.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석대학교가 5월 21일 전주캠퍼스 우석스카이(W-SKY) 전망대에서 '우석 국제 수소연료전지 포럼'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힘. 포럼에는 세계 각국 수소연료전지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해 그린수소 기술, 국제표준화, 수소산업 미래 등을 논의하는 학술 교류의 장으로 마련될 예정임. 이는 수소에너지 분야의 국제적 협력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p>기술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럼은 전북과 완주군의 수소연료전지 산업 역량을 글로벌 무대에 알리는 데 초점을 맞춘. IEC 연료전지기술위원회(TC 105) 의장인 이흥기 우석대 부총장이 좌장을 맡아 일본, 독일 등 7개국 전문가와 각국 수소 모빌리티 정책, 그린수소 생산 기술, 국제표준화와 상용화 연계 전략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 - 참석자들은 행사에 앞서 완주 수소용품검사지원센터와 수소전지 부품기업 비나텍 등 지역 수소산업 현장 투어에 참여해 전북의 수소산업 인프라와 기술력을 체험할 예정이다. 이흥기 의장은 “국제사회와 수소 기술·정책을 공유하고 표준화와 상용화의 접점을 찾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노력을 약속
<p>해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없음)
<p>기타</p>	<p>□ APEC 자동차 대화, 전기차·배터리·수소 등 미래 모빌리티 핵심 의제 논의(2025.05.0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회원국들이 전기차·배터리·수소 기술을 모빌리티 미래 핵심으로 인식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함. 산업통상자원부는 '제41차 APEC 자동차 대화'가 9~10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열린다고 밝힘. APEC 자동차 대화는 회원국 정부와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자동차 산업 현황과 정책 등 주요 의제를 논의하는 민관 협의체임 - 이번 행사는 제주 APEC 제2차 고위관리회의(SOM2) 계기로 한국에서 열리며,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칠레 등 14개국 이상이 참석함. 산업부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가 공동의장을 맡아 진행하며, 참석자들은 자동차 산업 시장 동향, 전기차 전환, 자율주행과 AI 기술, 미래 모빌리티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 - 한국은 전기차 아키텍처 혁신, 배터리 재활용, 수소 모빌리티 및 연료전지 기술, 목적기반모빌리티(PBV) 등 미래차 전환 관련 내용을 발표할 계획임. 산업부는 이번 대화가 급변하는 글로벌 자동차 산업 환경 속에서 회원국들이 미래차 전환과 공급망 재편 등 주요 이슈에 공동 대응하는 협력의 틀을 점검하고, 실질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

☞ UAM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 (해당 없음)
대학교	- (해당 없음)
해외	- (해당 없음)
기타	<p>☐ 1400조 UAM 시장, 잇단 항공 사고로 상용화 지연 우려(2025.05.0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서비스 상용화가 당초 목표보다 지연될 전망이다. 잇따른 항공 사고로 안전 기준이 강화되고 있으며, 관련 인프라 구축 또한 더딘 상황이 주요 원인임. 현대차그룹 슈퍼널은 S-A2 시범 비행을 진행했으나, 2028년 상용화 목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현실 - 글로벌 UAM 시장 선두 주자인 조비에비에이션도 상용화 시점을 2024년에서 2026년으로 연기했으나, 미국 연방항공청(FAA) 인증 절차 지연으로 이마저 불확실하다는 전망이 나옴. FAA의 5단계 형식 인증 중 조비에비에이션은 3단계 취득 후 4단계에 머물러 있음 - UAM 기체 출시 후에도 상업 운행까지는 대규모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 UAM 승강장, 관제 시설, 충전소, 5G 통신망 구축 등 막대한 자금 투자가 요구됨. UAM 제조사들의 적자 규모도 증가 추세로, 조비에비에이션과 슈퍼널 모두 영업손실이 크게 늘어남. 그럼에도

☞ 우주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p>☐ 스피어, 美 우주항공사와 추가 공급 계약 체결...누적 수주액 급증(2025.05.0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합금 전문기업 스피어가 미국의 글로벌 우주항공 발사업체와 총 3건의 추가 공급 계약을 통해 약 119억 원 규모의 특수합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발표함. 이는 스피어의 기술력과 제품 신뢰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로 평가되며, 향후 성장 동력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 - 지난 7일 전자공시에 따르면, 스피어는 해당 업체와 97억 9005만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382.76%에 해당하는 큰 규모임. 계약 기간은 2025년 5월 2일부터 11월 21일까지임. 또한, 각각 14억 7684만 원, 6억 1867만 원 규모의 공급 계약도 연달아 체결하며 지속적인 수주 성과를 이어감 - 이로써 스피어의 올해 수주 누적 규모는 약 390억 원에 달하며,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약 1523%라는 경이적인 수치임. 계약 상대방의 정보는 영업기밀 보호 요청에 따라 비공개되었으나, 글로벌 우주항공 시장에서의 스피어의 입지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품질 관리가 중요한 시점
민간기업	<p>☐ 삼성·SK, 국제 달 탐사 '아르테미스 2호' 참여, 우주방사선 반도체 성능 실험(2025.05.0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국제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2호'에 탑재될 우주방사선 측정용 큐브위성 부탑재체 개발에 참여함. 한국천문연구원은 두 기업과 각각 큐브위성 부탑재체 개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힘. 이는 우주항공청과 NASA 간 협력 이행약정의 후속 조치 - 우리나라가 개발할 큐브위성 'K-RadCube'는 지구 주변 반앨런대의 우주방사선을 측정하고, 이 방사선이 우주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임무를 수행함. 천문연구 주탑재체 개발을 총괄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공동 연구를 통해 각각 차세대 반도체의 우주 환경 동작 검증 및 메모리 반도체 품질 향상 방안을 연구할 계획 - 이번 프로젝트에는 나라스페이스가 위성체 설계·제작·검증·이동을, KT SAT이 지상국 인프라 구축 및 위성 운영을 담당하는 등 국내 여러 기업이 참여함. 박장현 천문연 원장은 이번 기술 개발로 국내 우주기술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냄. 우주 환경에서의 반도체 기술 검증은 향후 우주 산업 발전에 중요한 데이터가 될 전망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p>□ 손재일 한화 대표, "제주 한화우주센터에서 6G 통신위성 생산 계획"(2025.05.1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및 한화시스템 대표가 제주 한화우주센터에서 6G 통신위성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힘. 손 대표는 오영훈 제주지사와의 면담에서 “통신위성이 가시화되는 시점에 늦지 않게 시설 투자 등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언급하며, 제주의 우주산업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냄. - 한화시스템의 제주 우주센터는 오는 10월 제주 서귀포시 하원테크노캠퍼스에 준공될 예정이며, 현재 공정률은 약 60% 이상임.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만 6177.8㎡ 규모로 조성되며, 위성 조립·통합·시험(AIT) 시설을 갖추어 저궤도 초소형 위성 조립 및 관련 연구를 수행하게 됨. - 오영훈 제주지사는 “한화 제주우주센터 건립이 지역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 “제주도가 통신위성 분야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화답함. 하원테크노캠퍼스는 산업단지로 지정되어 향후 더 많은 우주 관련 기업들의 입주가 예상되며, 제주가 우주산업의 새로운 거점으로 부상할 전망
	<p>□ 키프코우주항공, 한화시스템과 L-SAM 다기능 레이더 핵심부품 양산 계약 체결 (2025.05.1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주방산 전문기업 키프코우주항공이 최근 한화시스템과 250억 원 규모의 'L-SAM 다기능 레이더용 핵심 구성품 양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힘. L-SAM(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은 적의 탄도 미사일 요격 및 항공기 격추가 가능한 '한국형 사드(THAAD)'로 불리는 핵심 방어체계 - L-SAM의 레이더는 다기능 S밴드 AESA(능동주사위상배열) 레이더로, 장거리 표적 탐지·추적, 항공기 식별, 재머 대응, 유도탄 교전 등 복합 임무를 단일 레이더로 수행 가능함. 이번 계약으로 키프코우주항공은 다기능 레이더(MFR)의 핵심 구성품인 수신기, 송수신 모듈용 하우징 등 수십 종의 양산품을 한화시스템에 공급하게 됨 - 키프코우주항공은 이번 양산과 병행하여 미사일 요격 고도를 사드 수준으로 개발하는 L-SAM II 개발 사업 및 장사정포 요격 체계 냉각 시스템 개발 사업에도 참여를 확정 지었음. 1989년 설립된 키프코우주항공은 저궤도 위성 사업 핵심 기술 및 차기군 위성통신 핵심 기술도 자체 개발 중이며, KF-21 전투기 EOTGP 등도 양산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대학교	<p>□ 부산대, 국내 최대 '우주환경 진공시험시설' 구축 완료(2025.05.0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대학교가 국내 최대 규모의 '우주환경 모사용 대형 진공시험시설'인 'SPACE-1'을 교내에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본격적인 우주 개발 연구에 착수함. 이 시설은 항공우주공학과 김호락 교수 책임 하에 과기부 신진연구자인프라구축사업 지원으로 약 3억 원이 투입되어 완성 - 직경 1.7m, 길이 3.5m의 대형 챔버는 국내 대학 연구기관 자체 확보 인프라로는 이례적인 규모임. 최대 5kW급 이상 전기추력기 시험 및 위성 부품, 우주용 반도체, 소재 등의 고진공 환경시험이 가능하며, 10⁻⁷ Torr 이하의 진공 상태를 유지하며 다양한 장비 성능을 정밀 평가하도록 설계 - 김호락 교수는 이 시설이 국내 전기추진 기술 자립과 차세대 우주 추진 시스템 개발의 핵심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함. 향후 광학 센서, 탐침 장치 외 고진공 펌프와 흑연판을 추가 설치해 더 높은 진공 조건 구현도 추진하며, 정부 지원 과제 수행 및 국내외 연구기관·기업 협업을 통해 '국내 우주추력기 시험·성능평가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계획
해외	- (해당 없음)
기타	- (해당 없음)

※ 본 발간물은 제주연구원(연구기획부)에서 온라인 상의 자료를 조사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